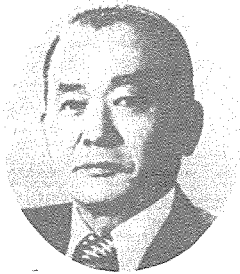


遺傳工學研究開發의 成敗



閱寬植 會長

新愛하는 遺傳工學 關係專門家 여러분!

그리고 이자리에 참석하신 來賓 여러분!

오늘 존경하는 權正達 民主正義黨 事務總長, 金容瀚 科學技術次官을 모시고 우리나라 遺傳工學 研究開發을 위한 學術協議會를 결성하는 뜻깊은 자리에서 本人이 開會의 人事를 드리게 된것을 無限히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미 周知하고 계신바와 같이 遺傳工學은 歐美先進諸國을 비롯하여 가까운 日本만 하더라도 오래전부터 그 無限한 가능성에 커다란 기대를 걸고 획기적인 研究成果를 얻기 위해 擧國의으로 온갖 熱과 誠을 다하여 支援育成하고 있는 最優先의 高度戰略事業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本人 自身이 최근 美國과 日本을 잠시 돌아보는 기회에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全世界의으로 온통 遺傳工學의 熱風이 일고 있는 시기에 우리나라에서도 근래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크게 高潮되고 있음은 매우 반갑고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과학기술처당국이 이 분야의 연구개발을 국가의 당면 주요 政策課題로 결정하고 必效로 遺傳工學時代의 역사적인 到來를 준비하기 위하여 그에 힘쓰고 있으며, 특히 政策政黨을 指向하는 民正黨이 擧黨의으로 이 분야의 支援育成을 제창하고 있음을 볼 때 本人은 실로 눈부신 발전의 변화를 실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우리 企業人들도 遺傳工學의 육성을 財政的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이미 研究組合을 결성했다는 고무적인 소식을 접하고 學界의 關係專門家들과 더불어 새로운 희망과 기대로 가슴설레임을 禁할 수 없습니다.

本人은 이자리를 빌어 우리 政府當局의 그 進取的 決斷과 民正黨의 그 先驅者的 決意, 그리고 우리 企業人의 그 勇斷에 대하여 學界를 代身하여 뜨거운 감사와 경의를 表하는 바입니다.

賦存資源의 天惠를 입지 못하고 더구나 國土分斷의 重壓과 不利를 勘耐하며

이 나라 未來 國運 開拓 關鍵

다행스럽게도 우리 民族은 세계 그 어느 民族보다도 우수한 두뇌를 타고 났으며 그동안 우리 사회에 蓄積造成된 科學技術의 研究基盤과 環境은 우리의 그 우수한 두뇌를 개발하기에 따라서는 앞으로 세계 어느 나라에 못지 않게 無限히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遺傳工學에 지대한 관심을 集注하고 있는 까닭도 바로 이분야의 연구개발이 우리의 그 우수한 두뇌가 위대한 勝利를 가져올 수 있는 가장 野心的이고도 확실한 標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本人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遺傳工學研究開發의 成敗는 미래의 이 나라 國運開拓의 關鍵이 된다고 本人은 믿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學界專門家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국가적인 聲望과 激勵를 받으며 이자리에 모여 學術協議會를 構成하고 이 나라 遺傳工學의 끝없는 발전과 승리를 다짐하는 참뜻도 바로 이상과 같은 認識에 基礎하고 있다는 점을 本人은 특히 강조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께서는 이제부터 보람 있는 挑戰에 나섰다는 무거운 責務와 使命感으로 상호협조하며 刻苦奮闘하여 우리 産業史에 새로운 章을 여는 先導者가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本人은 聯合會가 이 學術會議의 역사적인 發足에 產婆役을 맡게 된 것을 커다란 榮譽로 생각하며 이 學術會議를 母體로 하여 未久에 설립될 研究所의 앞날에 무궁한 榮光과 發展이 있기를 祈願하는 동시에 遺傳工學研究開發에 끊임없는 指導와 支援·育成的의 勞苦를 다해주시실 關係要路에 다시 한번 謝意와 敬意를 表하면서 개최의 인사에 대하여도 감사드립니다.

1982月 4月 22日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 會長 閔寬植